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북미주 지회연합회

Ewha Womans University United Alumnae Chapters of North Ameri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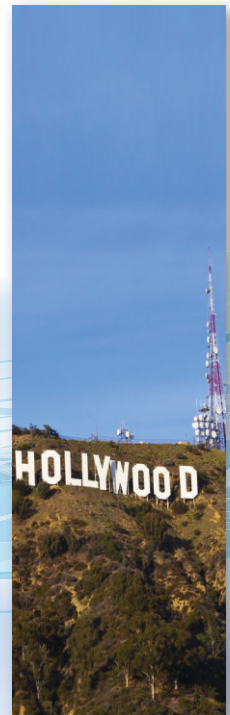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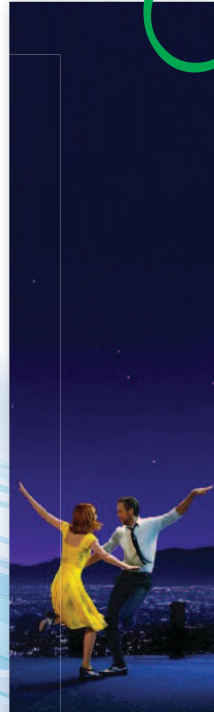
이화
동창

2022

Los Angeles

TOGETHER in

Hope



OCT. 27-30, 2022 / Hilton LAX

안정적인 재정을 위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지도나 안내서는 필요없습니다.



삶의 최선을 다하는
플랜에 초점을
맞추세요.

The offering documents (policies, contracts, etc.) for all New York Life and its subsidiaries products are available only in English. In the event of a dispute, the provisions in the policies and contracts will prevail. 뉴욕라이프 및 그 자회사들이 제공하는 모든 증권 계약서는 영문약관으로만 취급이 가능합니다. 논쟁이 발생할 경우는 증권과 계약서의 각 조항이 우선합니다.

SMRU 1791699 exp. 12/31/22
© 2022 New York Life Insurance Company, 51 Madison Avenue, NY, NY

Insure. Prepare. Retire.

Be good at life.



2022 LOS ANGELES 이화여자 대학교 북미주지회연합회를 축하합니다.



Moonsoon P. Lee / 박문순
917-886-9831
New York, NY
1962 - 1966 / 사학과



Sun Hee Lee / 이선희
310-709-7558
Los Angeles, CA
1965 - 1968 / 약학대학



Soon Hwan Hong / 홍순환
213-700-8266
Los Angeles, CA
1970 - 1974 / 비서학과



Hae Hyun Moon / 이해현
253-205-7561
Seattle, WA
1970 - 1974 / 도서관학과



Elaine Gi / 지은경
818-935-3527
Los Angeles, CA
1977-1981 / 건강교육학과



Helen Yoo / 이해진
213-820-6551
Los Angeles, CA
1977 - 1981 / 건강교육학과



Hyejin Cho / 조혜진
310-387-1334
Los Angeles, CA
1985 - 1989 / 장식미술학과



Karin Namkung / 남궁 경
310-691-3877
Los Angeles, CA
1986 - 1990 / 서양학과



Kyungeun Kim / 김경은
972-589-1828
Dallas, TX
1989 - 1993 / 행정학과



Myungjoo Lee / 이명주
734-604-7656
Okemos, MI
1991 - 1995 / 법학과

Contents

초대의 글

정현숙 / 북미주지회연합회 회장	4
황수영 / 북미주지회연합회 이사장	

축하의 글

김은미 /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5
남상택 / 이화여자대학교총동창회 회장	6
Bishop Mary Swenson / 이화여자대학교 국제재단 이사장	

이화소식

2021 Detroit 총회 참가 후기	8
지회소식	9

모교 및 지회별 장학금 현황	17
-----------------	----

연도별 총회 개최 지회	18
--------------	----

북미주지회연합회 지회장 명단

이화여자대학교총동창회장 공문	19
-----------------	----

2022 남가주 총회 일정 및 안내	20
---------------------	----

참가 신청서	21
--------	----

광고 / 후원	22
---------	----

2022 북미주지회연합회 회보

발행인_정현숙 (87 체육)

편집인_이정현 (76 도서관), 권수정 (21 문헌정보), 정현숙 (87 체육)

표지디자인_방혜정 (87 장식미술)

사랑하는 이화여대 북미주지회연합회 동창 여러분



정현숙 (87 체육)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북미주지회연합회 회장

안녕하세요? 올해 남가주지회 주관으로 열리는 총회의 주제는 그 동안 만나지 못했던 아쉬움을 떨치고 우리 모두 희망으로 함께 하자는 소망으로 'Together in Hope' 으로 정하였습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지난 2년간 열린 두번의 총회는 영상으로만 만날 수 있어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올 10월 Los Angeles에서 열리는 2022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는 총장님을 모시고 그간의 그리움을 모두 담아 'Together in Hope' 라는 주제로 대면 총회를 소망하며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가주는 미주 지역에서 가장 많은 한인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너무나 유명한 Santa Monica Beach, Beverly Hills, 영화 La La Land 의 배경이 된 Griffith 천문대, Getty Center, Hollywood Bowl, Universal Studio와 Disney-land 등등, 일일히 나열하기 힘들 만큼 수많은 관광지과 명소들을 자랑합니다.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는 이화의 선후배들이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묻고 같이 여행하고 식사도 나누며 지난 학창 생활을 추억하는 미주동문회 최고의 즐겁고 행복한 연례 행사입니다. 부디 LA 총회에 많이 오셔서 저희가 마련한 푸짐한 프로그램들-캐년여행, 골프, 일일 관광과 재미있는 클래스 등-을 즐겨 주시고 선후배간의 돈독한 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해마다 총회에 모여 좋은 시간을 갖는 가운데 우리의 모교를 돕는 기금 모금을 해왔습니다. 운영하기 쉽지 않았던 영상총회 중에도 정말 열심히 기금 모금을 해서 모교 후배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총장님을 모시고 모교의 발전상과 도전, 그리고 총장님의 야심적인 비전을 배우는 가운데 동창들이 모교의 발전에 어떻게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지 알아보며 참여하는 기회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모두 건강 잘 유지하셔서 10월 27일~30일에 열리는 2022 LA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에 많은 선후배님들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10월에 아름다운 LA에서 뵈어요!

사랑하는 북미주지회연합회 이화동창 여러분



황수영 (89 화학)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북미주지회연합회 이사장

이화동창 여러분 안녕하세요?
2년 전 Covid-19 이라는 바이러스가 처음 알려졌을 때만 해도 이렇게 긴 시간 사랑하는 선후배 여러분을 직접 만나지 못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현대 의학의 수준이면 몇 개월, 길어야 1년이면 예방약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어 곧 대면총회도 개최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저의 막연하고 낙관적인 예상과는 달리 어느덧 한 해, 두 해의 시간이 지나고 있네요.

대면 총회가 취소되었던 2020, 2021년의 총회는 각각 북텍사스지회, 디트로이트지회에서 유튜브 영상과 줌미팅으로 총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도는 이화인의 도전 정신과 독창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로서 타고 동창회들로부터도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올 2022년에는 오래 기다린 끝에 드디어 대면 총회를 하게 되어 그 어느때 보다도 더 큰 설렘으로 기대가 됩니다. 정현숙 회장님을 중심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남가주지회 동창들에게 응원을 보냅니다.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는 북미주 전역의 동창들이 총장님과 총동창회장님과 함께 한 자리에서 모교의 교훈인 진, 선, 미의 참 뜻을 다시한 번 새기며 선후배 간의 정과 모교 사랑을 나누는 축제의 자리입니다. 또한 학창시절 이화에서 배운 선도적인 여성교육의 배움을 각자의 생활터전에서 실현하고 결실을 맺은 경험을 나누며 여성교육의 중요성과 후배양성에 대한 새로운 비전도 서로 나누는 자리라고도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남가주지회 동창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10월 27일~30일, 3박 4일간 'Together in Hope'를 주제로 진행되는 총회 기간 동안 이화인들간의 아름다운 교제와 함께 북미주 지회연합회가 더욱 더 발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명문 이화



김은미 (81 사회학)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미주지역 동창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모교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김은미입니다.

항상 이화를 위해 기도해주시는 동창 여러분
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작년 취임하면서 ‘새로
운 시대, 새로운 명문 이화’를 약속드렸습니다.
오늘 지면을 통해 작년의 성과를 공유드리고
자 합니다.

첫째, ‘연구중심 대학’의 활성화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앞으로의 명문대학은
연구역량과 평판도가 중요할 것이며, 대학 평
판도는 구성원의 만족도는 물론, 교육의 질과
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작년 본교는 대학 발전
을 견인할 우수연구육성 프로젝트, “Frontier
10-10”을 런칭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사업단과 미래 잠재 경쟁력이 우수한 사업단,
총 6개를 선정하고 앞으로 20개를 더 선정하여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요한 성과는 또 있
었습니다. 우수한 학문 후속세대인 대학원생
들이 이화 연구를 함께 견인해야 하는데, 작년
에 지난 10년 대비 가장 높은 대학원 총원률인
93.3%를 기록하였습니다.

대학 평판도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젠더 격차가 현존하는 한국에서 이화가 온전히
평가받기는 쉽지 않음에도 이화는 작년 중앙
일보 대학평가에서 지난 평가 대비 2계단 상승
한 6위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약진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
명 시대를 선도할 AI (인공지능)학부를 설립하
고 국내 대학 최초로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
을 설립하였습니다. 약학대학도 선발 절차를
거쳐 국내 가장 큰 규모로 6년제 전환을 성공
적으로 마쳤습니다. 교수 총원도 적극적으로
하였습니다. AI 전문가로 우리나라와 세계 게임
산업을 이끌고 있는 NC Soft의 사장, 윤송이
박사님을 명예석학교수로 영입하고, 세계적
신약 개발의 대가이신 김대기 교수님을 초빙
석학교수로 연구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두번째는 디지털변혁에 맞는 교육 플랫폼 개발
입니다. 온라인과 대면수업의 결합을 기회로
보고, 본교 교육의 특성에 맞춘 이화형 교육
모델, THE BEST (Best quality content,
Environmental flexibility, Self-directed
learning, Technology-enhanced)를 개발하고
이번 학기 230개의 융합 및 원격수업을 시작
합니다.

세번째, 학생지원 강화입니다. 온라인 상담을
확대하고 AI와 빅데이터 기반의 챗봇, Chat-
E(채티)를 개발하여 학생들의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였습니다. 학생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의료 진단전문기업 씨젠의 코로나
테스트기 10만개를 기부 받아 “Ewha Safe
Station”을 설립했습니다. 서대문구청, 이화
의료원, 대학건강센터의 도움으로 구성원들이
학내에서 코로나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빠른
시간에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네번째는 건전한 행정과 재정 수립입니다.
많은 분이 이화의 가능성을 보고 응원해 주서
서, 기금과 장학금 기부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2021년 기부금 약정액은 코로나 이전 대비 2
배 이상을 기록했고, 연구비도 지난 10년간
900억-1,100억 사이에 정체되어 있었으나,
2021년 1,260억 이상을 수주할 수 있었습니다.

이화는 두 대학병원을 가졌습니다. 올해 이대
서울병원이 사립대학 중 최초로 코로나전담병
원으로 지정되면서 방역의 최전선에서 애쓰고
있고 이대목동병원은 국내 대학병원 중 최초
로 비노기 병원을 개원하고 여성암 병원도 확
충하였습니다. 이대목동병원은 환자 케어링을
극대화한 MCC (Mokdong Hospital Caring
Complex) 설립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화다움 E-Culture의 확산입니
다. 이화는 여성의 인격화 실현을 위해 수많은
도전을 거듭해왔습니다. 이화의 비전에 감응
한 글로벌 기업 Dior에서 글로벌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파트너십을 제안하여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 파트너십으로 이화는 더 넓은
세상에 우리 인재를 보내어 공공의 선을 실천
할 수 있는 인재, 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인재로 우리 학생들을 키워나갈 것 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
를 알지 못한다”는 마태복음 말씀이 있습니
다. 항상 깨어있고 준비된 사람만이 불시의 기
회를 잡을 수 있다는 이 말씀이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합니다. 동창
여러분, 우리 이화가 항상 깨어서 준비하며 내
일을 대비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곧 직접 찾아 뵙고
만날 수 있기를 고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의 글



남상택 (74 물리)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장

남가주지회에서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가 개최됨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북미주지회연합회 이화동창 여러분! 북미주지회연합회가 더욱 발전하는 소식을 들을 때 마다 헌신과 봉사로 이화정신을 실천하시는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고 고맙습니다. 특히 2022년 총회를 위해 열정을 다해 준비하는 남가주지회 정현숙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번 총회를 개최하신 전 회장님들께서도 이번 총회를 위해 총동창회를 방문해 주신 정성 또한 감사합니다. 올 총회 주제 'Together in Hope'는 팬데믹이 끝나고 일상의 소중한 행복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모든 이화동창의 소망을 잘 표현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모교 창립 136주년인 올해는 24만 동창의 유기체인 총동창회 창립 114주년이기도 합니다. 북미주지회연합회는 전 세계 지회 중 가장 큰 지회로서 그 동안 국제재단과 함께 모교와 총동창회에 큰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지회와의 유대감을 굳건히 하는 모범지회로서 2019년엔 아시아지회를 발족하는 계기가 되어서 더욱 감사합니다.

올해도 총동창회는 연례행사인 지회장 초청 간담회를 작년처럼 온라인 화상회의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지회장까지 모두 초대해 세계 곳곳의 동창들 소식을 듣고 의견을 나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화동창들은 언제 어디에서 만나도 인생의 가장 푸르렀던 시간을 이화의 같은 캠퍼스에서 보냈다는 유대감을 크게 갖고 있다는 것을 작년에 처음 가져 본 총동창회 글로벌 화상회의를 통해서도 다시 한 번 깊이 느꼈습니다.

금년 5월 '동창의 날'에는 졸업 50주년을 맞는 동창들을 '영원한 이화인'으로 추대하여 기념하는 자리를 처음으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행사에 북미주지회연합회 동창들도 함께 참석하시게 되어서 매우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끝나면 졸업 50주년을 맞는 '영원한 이화인'과 졸업 30주년을 맞는 '올해의 이화인'이 함께 추억이 가득한 교정에서 만남의 축제가 되기를 기대하며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행사준비를 위해 정성을 다해 봉사하시는 남가주지회 임원 분들께 거듭 감사드리며, Los Angeles 에서 만날 때까지 이화가족 여러분과 가정에 항상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이화국제재단이사장 축하의 글



Bishop Mary Ann Swenson

Ewha Foundation President

Greetings, Beloved Community at Ewha. It gives me such great joy that for my first time as President of the Foundation, we will be gathering in Southern California. Even though I have traveled all over and to the campus many times over the years, my home for the last twenty-two years has been Pasadena, California. The Southern California Alumnae Association (LA) will host all the United Chapters, and I am so excited about this.

Since we have had to meet virtually for two years during the pandemic, I am especially happy that we plan to meet face to face. The last time I was with you face to face was in Bellevue, Washington, and that was a wonderful meeting. Our Southern California chapter has worked really hard to prepare for this. And we always have beautiful weather here. In case some of you cannot come for face to face please, join us virtually. It is always good to be together in whatever way we can.

It has been a privilege to work on the Foundation board with Marc Mullinax as President. I have so appreciated his spirit and commitment. And he will continue on the board so maybe we can honor him at this meeting. I love how he once reminded us to reflect on how far we have come because of some influential person and how we alums and donors might become champions for others. Yes, indeed! Let us continue the amazing witness for a grand university and provide hope for a future generation of women leaders.

With gratitude and hope,

Mary A. Swenson
Bishop Mary Ann Swenson
President, IFEWU

이화 뉴스

김준희 동창, 모교 발전 위해 51억 8천만 원 쾌척

김준희 동창(60 영문)이 모교 발전 기금 51억 8천여만 원을 기부했다. 김 동창은 “이화를 졸업하고 보니 이화라는 존재가 사회에서 나에게 큰 보증인이 되어주었다. 이번 기부는 이화의 졸업생이라는 큰 혜택을 누린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김 동창은 이화에서 받은 교육과 나눔, 섬김 배려의 이화정신으로 World Vision에서 해외 후원자들의 영문 편지 번역 업무에 종사했고, 굿네이버스 창립 회원으로 30여 년 동안 꾸준히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김준희 동창의 기부는 이화가 새로운 시대를 기회로 새롭게 도약하고자하는 중요한 시기에 큰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젠더평등, 저소득학생 지원 등 UN 지속가능 개발목표 위한 노력 평가받아

모교가 영국 고등교육평가기관 (Times Higher Education) THE 에서 발표한 ‘THE 세계대학평가’의 젠더평등 부문에서 2년 연속 국내 대학 1위를 차지했으며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지원과 빈곤 구제에 관한 부문에서도 훌륭한 평가를 받았다. THE 랭킹은 연구 업적, 젠더평등, 빈곤퇴치 등 17가지의 평가 지표로 대학이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유일한 글로벌 랭킹이다. THE 세계 대학 영향력 평가의 우수한 성과가 입증하듯 모교는 한국을 대표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젠더평등, 빈곤 종식 등의 사회적 책무 이행을 선도하고 있으며 우수한 연구 업적뿐만 아니라 섬김과 나눔의 이화 정신을 실현하고 있다.



미래 이화를 견인할 ‘Ewha Frontier 10-10 사업’ 추진



‘Ewha Frontier 10-10 사업’은 김은미 총장이 연구중심대학으로서의 경쟁력 제고 및 위상 확립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대학 발전계획 ‘Ewha Vision 2030+’의 주요 목표인 ‘세계적 수준의 성과 창출을 위한 창의 연구 생태계 조성’의 대표 추진 과제이다. 이에 모교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선도 분야와 미래 유망 도전 분야’에서 각각 10개 이내 사업단을 선정하여 총 3년간 사업단별 20~5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하게 된다. 선정 사업단은 석학 또는 우수 교원 초빙, 신진연구인력 및 대학원생 지원, 연구 환경/인프라 확충, 국제 공동연구 및 국제화 지원 등 전폭적 지원 속에 선도적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모교, 세계적 패션브랜드 디올과 파트너십 체결 및 한국최초 디올 컬렉션쇼 개최



모교가 국내 대학 최초로 세계적 패션 브랜드 디올 (Dior) 과 미래인재 양성과 지속가능 사회 구현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로서 디올은 모교 재학생들에게 장학금과 인턴십, 다양한 트레이닝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디올 현지 전문가들이 직업 현장의 노하우를 직접 전수하는 마스터 클래스는 학생들이 미래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파트너십 일환으로 지난 4월 30일 모교에서 한국 최초의 글로벌 디올 컬렉션 쇼가 성황리에 개최되어 많은 관심을 끌었다.

2021 Detroit 디트로이트 총회 후기



남궁봉일 (81 체육)

영상으로 함께 한 이화인의 힘

팬데믹으로 인해 총회 역사상 처음으로 영상으로 열린 2020 달라스 총회에 이어 2021년 디트로이트 총회 역시 영상으로 열렸다. 이 총회를 위해 모든 지회들이 각 지회의 특성을 살린 영상을 제작하여 디트로이트에 보내는 과정에서 수많은 소통이 오고 갔다. 디트로이트 지회의 임원들은 총회 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와중에도 각 지회에서 보내오는 수많은 질문과 요청에 매우 성의 있게 신속한 답변과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다. 덕분에 달라스 첫 영상총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두번째 디트로이트 영상 총회도 매우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전체 합창 'Butterfly' 는 선후배들이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이화여대북미주지회의 모든 동문들에게 너무나도 어울리는 최고의 선곡이었다. 탈런트 쇼에서는 토론토 지회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대상을 양보하지 않았다. 1등은 BTS의 'Permission to Dance'에 맞춰 1944년부터 2000년 이후 졸업한 동창들이 함께 춤추며 즐거운 추억을 만든 남가주지회, 2등은 대뉴욕지회와 워싱턴 DC 지회가 공동으로 차지했다. 그 외에도 마구 망가지는 모습으로 모두를 즐겁게 한 북가주 지회, 대 선배님을 모시고 라인 댄스를 한 아틀란타 지회 등 여러 지회들이 나름의 특성을 살려 재미있는 쇼들을 준비해 모두를 웃음 바다로 몰아 넣었다.

총회 참가자들을 추천해서 만사형통상, 운수대통상을 주었다. 이름만 들어도 대박이 날 것 같은 기분 좋은 상을 만든 황수영 (89 화학) 회장님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박수를 보낸다.

영상총회를 준비하는 데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나름대로 이점도 있었다. 지역에 관계없이 직접 가지 않고도 영상으로 모교 소식을 접하고 총장님과 동창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편리함과 시간 제약 없이 영상으로 재생해 볼 수 있어 평소엔 잘 참가하지 않던 많은 동창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널리 제공했다는 점이다. 디트로이트의 황수영 회장님과 임원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각 지회장 및 지회 내에서 열심히 돕고 참여해 주신 모든 동문들의 수고와 노력의 땀방울이 바로 이화여대의 힘을 만들어 내는 원동력이라 생각한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디트로이트 지회와 각 지회, 그리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도와 주신분들

후원

진	이춘자 (62 약학)	\$5000
	남궁봉일 (81 체육)	\$3000
	정태숙 (61 교육)	\$3000
	고복주 (70 생물)	\$2000
	노정숙 (69 신문방송)	\$2000
	송향미 (86 작곡)	\$2000
	오명애 (74 장식미술)	\$2000
	윤수현 (68 조소)	\$2000
	황정미 (72 의학)	\$2000

미	김인경 (76 영문)	\$500
	박신화 (70 기독교)	\$500
	배정연 (90 동양화)	\$500
	서효숙 (62입학 체육)	\$500
	녹미희	\$500
	민화모임	\$500
	OC 모임	\$500
	선교부	\$500

선	김경녀 (81 국문)	\$1000
	김영자 (68 생활미술)	\$1000
	김정순 (75 간호)	\$1000
	박화자 (66 간호)	\$1000
	배순자 (68입학 무용)	\$1000
	송은섭 (57 정치외교)	\$1000
	안영숙 (75 간호)	\$1000
	안혜숙 (74 간호)	\$1000
	장경해 (75 피아노)	\$1000
	오순희 (72 체육)	\$1000
	이승자 (65 체육)	\$1000
	이진희 (89 조소)	\$1000
	이정현 (76 도서관)	\$1000
	최경실 (89 특수교육)	\$1000
	홍연선 (87 중문)	\$1000
	홍현애 (85 조소)	\$1000
	간호대	\$1000
	건미희	\$1000
	골프부	\$1000
	합창단	\$1000

광고

뉴욕라이프	\$3000
리브아트-박경희 (78 섬유예술)	\$3000
한아장학재단-이충선 (56 약학)	\$3000
Coldwell Banker-문인순 (68 생활미술)	\$2000
Century 21-장계원 (76 도서관)	\$2000
Choice 100 Realty-정현숙 (87 체육)	\$2000
Esaeng -김주경 (77 관현악)	\$2000
IMATS-이보경 (80 생활미술)	\$2000
듀오	\$2000
로랜드	\$2000
유니티보험	\$2000
반찬 알라까르떼 캐더링	\$1000
이종걸재활병원-김민자 (78 피아노)	\$1000
서울대남가주총동창회-우명희 (73 생물학)	\$1000
서울메디칼	\$1000
한미보험-이명복 (75 식품영양)	\$1000
Han & Park Law-박유진 (94입학 정치외교)	\$1000
Leedco Engineers-김인채 (71 사회)	\$1000
Sky Tree-손정연 (93 섬유예술)	\$1000
바로김밥-전혜옥 (ALPS 39기)	\$600
박향내과-이주영 (81 관현악)	\$600
디스커버리 보험	\$600
Aura-최은주 (89 의학)	\$600
Kate Chu 보험-추경아 (89 영문)	\$600
Samho Tour	\$600

지회소식

Atlanta 애틀랜타, GA 회장 김경원 (81 가정관리)



혹독했던 팬데믹으로 인하여 지난 2년간은 영상으로만 모이다가, 지난 연말 모임을 기점으로 올해 2월부터 다시 매달 정기모임을 하고 있다. 감사한 줄 모르고 했던 그간의 대면 모임들이 얼마나 소중한하고 귀한 일이었던가를 만날 때마다 우리 모두 이야기한다. 3월 13일 23명의 회원이 모인

올해 두 번째 대면 동창회에서는 이인순 (69 약학) 동창이 '마지막을 위한 준비 (Well Dying)' 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대비해 우리가 유가족을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을 배운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다. 그 동안 주로 실내에서 지냈기 때문에 올해엔 야외 모임을 활성화하여 봄, 가을엔 Field Trip, 6월에는 공원 피크닉을 계획하고 있다. 봄 field trip 으로 4월 모임을 애틀랜타 근교의 Gibbs Garden으로 나들이를 가기로 했다. 매달 둘째 주 일요일에 만나는 동창모임 외에 음악부, 체육부, 선교부가 각각 별도로 모임을 갖고 있다.



남부의 허브인 애틀랜타는 좋은 기후와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 가격, 편리하게 계획된 한인타운, 한국 직항 항공편 등으로 살기 좋은 곳으로 널리 알려져 2000년대부터 많은 한인들이 유입되고 있다.

특히 추운 지역에서 일하다 은퇴하신 많은 분들이 따뜻한 이 곳을 찾아 오고 있다. 덕분에 애틀랜타 지회도 회원이 계속 늘어 현재 카톡

방 회원이 120명이 넘는다. 선배의 따뜻한 배려와 성원, 젊은 동창들의 열성적인 봉사로 애틀랜타 지회는 매 해 성장하고있다. 한참 팬데믹 중이었던 지난 2020년에는 애틀랜타 한인회에서 주최한 '고통받는 저소득가정에 음식 나누어 주기 행사'에 참여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열심히 참여하고 봉사하는 이대 동창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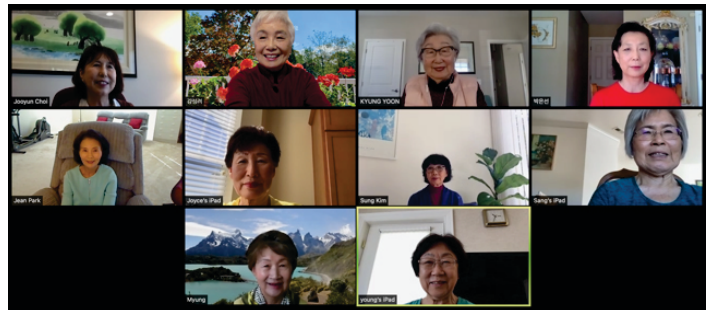


Baltimore 볼티모어, MD 회장 성주연 (66 약학)



지난 해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대면 모임을 한 번도 못 가졌다. 그 대신 세 번의 영상 모임을 갖고 동문 모두가 코로나 피해 없이 지나간 것을 확인하고 감사히 여겼다.

4월에는 대면 모임으로 만날 계획을 세우고 있다. 2년여만의 만남이라 설레일 정도로 기대가 된다.



지회소식

Boston 보스톤, MA 회장: 김지영 (82 교육)



두해 만에 열린 2021 대면 연말파티에서 오랜만에 만난 동창들의 얼굴에 반가운 웃음꽃이 피어났다. 맛있는 음식과 게임으로 그간 못다한 정을 마음껏 나누었다. 지난 해에 이어 풍성한 장학후원금을 모금해 지역사회 장학생 네 명에게 각각 \$1,000씩, 그리고 특별 장학금 \$1000, 총 \$5,000을 지급할 수 있었다. Homeless Shelter에 따스한 한국음식을 대접하고, 미국 원주민 어린이들 성탄 선물을 위한 성금도 마음을 모아서 보냈다. 내 가족, 내 학교, 내 나라를 넘어 더 넓은 이웃을 향해 우리의 손을 내밀 수 있게 늘 열린 맘으로 후원하는 우리 동창들이 참 고맙고 자랑스럽다. 2023년 보스톤 총회 개최 준비를 위해 Online Auction이라는 새로운 방법의 모금행사를 진행했다. Online Link에 들어가서 가격을 표시하고, 영상으로 다같이 한 자리에서 경매에 참여하는 즐거운 시간이었다.



2022년 신년 총회를 3월 5일 영상으로 실시했다. 새 회장단 소개 및, 예산, 결산 그리고 새해의 계획들을 나누었다. 특별 기획으로 보스톤 동창들의 대학시절 사진들을 모아서 이수용 (06 자연과학) 동창이 제작한 동영상 '그 어느날 학창시절'을 상영했는데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앵콜을 연발하는 감동의 시간이었다. 또한 천상의 맑은 소리인 아프리카 피아노 '칼림바 클래스'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이해연 (97 피아노) 동창이 해주었다. 한 가지 특별히 경사스런 소식은 우리 보스톤지역의 안은주 (08 관현악) 동창의 바이올린 연주가 지난 2월에 카네기홀에서 성황리에 열린 것이다. 기도와 축하로 성원해 주신 북미주지회 동창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 올해도 우리는 꿈을 꾸고 있다. Bird Watching Tour, 칼림바 교실, 건강요리강습, 건강세미나, 작은음악회, 피크닉 등등 풍성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내년엔 열릴 총회에 우리 북미주동창들을 보스톤으로 모실 준비를 하기 위해 모두 합심하여 바자회 등을 통해 억척같이 기금을 만들 계획이다. 우리 보스톤 지회는 풍성한 나눔과 사랑,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동창들의 따스한 보금자리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California, Northern 북가주, CA 회장: 이해연 (76 서양화)



새로운 회장단으로 시작한 2022년 1월 동창 모임은 팬데믹으로 인해 아쉽게도 영상으로 열렸다. 얼굴을 맞대고 눈을 맞추며 이야기할 수 있던 예전의 작은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달으면서 영상으로나마 만날 수 있다는 기쁨을 22명 동창들과 나누었다. 새 회장단은 2년 동안 수고하신 전임 회장단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경험은 없지만 기꺼이 이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봉사할 각오를 다졌다. 은행 계좌 등 인수인계 일을 의논하고 늘 지금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몫을 다하면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아끼는 아름다운 지회로 발전시킬 것을 다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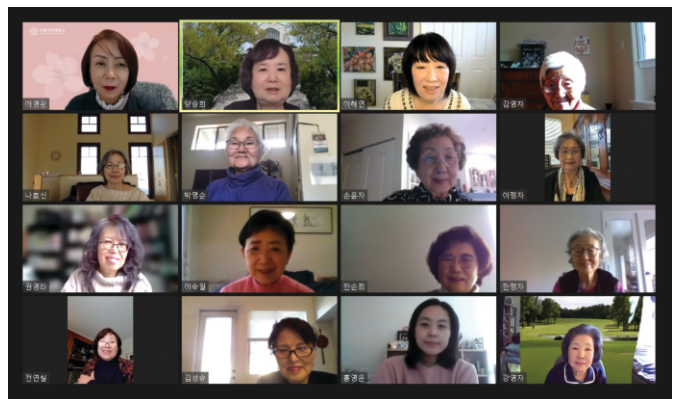
2월의 모임도 첫 번째 토요일 20명이 영상으로 만났다. 여전히 힘든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늘 지켜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머지않아 건강한 세상이 올 거라는 희망의 이야기로 서로 격려했다. 좋은 소식으로는 반가운 새로운 젊은 동창이 등장하여 열렬히 환영받은 것이다. 젊어지는 동창회의 기대로 오랜만에 웃음꽃을 피우며 오래오래 함께하기를 당부했다.

3월 모임도 역시 영상으로 했다. 2021년의 회계 보고와 장학기금 보고

이해연 (76 서양화)

등 어떠한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는 동창회의 일들을 논의했다.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수고해 주신 전 회장단과 장학위원들에게도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시작은 미약하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는 성경 말씀 처럼 한 분 한 분의 수고의 씨가 자라 숲을 이루리라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다.

2022년 계획은 아직 확실치 않은 현실 때문에 행사 예산을 준비하지 못한 상태로 4월의 만남을 기약했다.



California, Southern 남가주, CA

회장 정현숙 (87 체육)



남가주지회는 영상으로 개최된 2021 미시건 북미주지회연합회총회에서 각 부서별로 준비한 탤런트쇼와 합창에 모두 한마음으로 참여하였다. 전체 200여명의 총회 참가자 중 무려 70여 명이 참가한 남가주지회가 참가자상 및 유튜브 댓글상을 수상해 모든 지회들의 부러움을 샀다.



김은미 총장이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시아재단이 수여한 2021 창린티엔리더십상 (Chang-Lin Tien Distinguished Leadership Award) 을 수상한 후 LA를 방문하여 남가주동창들과 저녁식사 모임을 가졌다. 임원들 포함 30여명의 뜻있는 동문들이 모여 총장님으로부터 'Ewha



Vision 2030+' 에 대한 설명을 듣고 후원금 \$15,000을 모금하여 국제재단을 통해 전달했다.

지난해에도 이춘자 (62 약학), 고복주 (70 생물) 두 장학위원이 각각 \$3,000, \$2,000 의 장학금을 기부해 동문자녀 장학금 신청자 중 5명을 선정, 각각 \$1,000씩 수여했다. 2021 장학금 수혜자는 다음과 같다: Katie Chung (이수경 99 사회), Lina Kim (홍연선 87 중문), Josephine Kim (이진희 89 조소), Carissa Lee (김윤자 67 간호), Janice Kim (손정연 94 사회사업).



지역사회 내 인신매매 피해자를 구하고 교육하여 삶의 터전을 마련해주는 단체인 'Qualified' 에 기부금 \$1,000을 보냈다. 새해에 구성된 새 임원들이 3월 12일 김주경 (77 관현악) 전 이사장댁에서 모여 첫 모임을 갖고 10월에 LA에서 열릴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를 잘 치르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했다.

Cleveland 클리블랜드, OH

회장 김인숙 (82 정의)



클리블랜드는 미국 동부지역의 부호들이 철도를 통해 맨해튼과 함께 동시에 개발한 곳으로 미국 금융산업이 시작된 도시이기도 하다. 오대호 중 하나인 이리호 (Lake Erie)를 따라 자리하고 있는 이 도시는 이화 역사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곳이다. 이화학당을 설립한 스크랜턴 여사가 남편

과 사별한 후 그의 아들 윌리엄 B. 스크랜턴 (의사, 감리교 목사)과 함께 매사추세츠를 떠나 이주하여 머물면서 Woman's Foreign Mission Society를 통해 한국으로의 선교를 시작하고 한국으로 떠나기 전까지 살았던 곳이기 때문이다.

팬데믹으로 위기를 맞았던 시기에도 지회를 잘 이끌어간 문성애 회장 (81 생미)의 지도력으로 우리 지회는 2021년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북미주지회연합회 총동창회 영상총회에 많은 동창들이 참가했다. 1월 비대면 만남에서는 하와이, 캘리포니아, 플로리다에서 겨울을 보내고 있는 동창들뿐 아니라 서울로 이사간 동문도 참가해 그간의 근황도 알아보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삶의 지혜도 서로 나누었다. 6월에는 오랜만에 신성이(93 전산) 동문 댁에서 많은 동문들이 모여 정성껏 마련한 점심을 나누며 이화의 결집력을 확인하기도 했다.

클리블랜드지회는 은퇴한 동창들이 많고 계속 은퇴하는 분들이 늘어 갈 추세여서 은퇴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은퇴 후 삶을 활기있게 영위할 뿐 아니라 소중한 재능과 지식, 자산들을 활용해 동창회가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 중이다.

2024년은 지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매우 의미있는 기념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즉 이화의 탄생을 도와준 분들에 대한 역사적 자료 등 이 지역이 갖고 있는 이화의 뿌리를 찾아 작은 기념책자를 발간하자는 구상이다. 이화의 역사 및 발전한 모교의 자랑스런 모습을 미국 지역 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2세 3세들에게도 이화의 전통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회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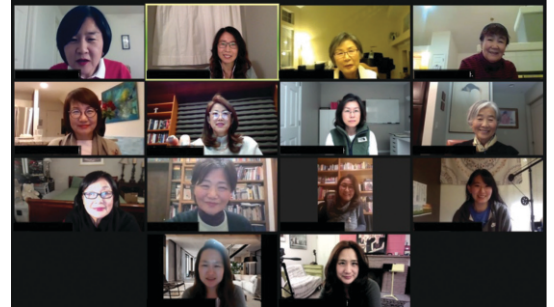
Denver 덴버, CO 회장 김선희 (94 문헌정보)



덴버지회는 팬데믹으로 인해 2021년도 떡국모임을 갖지 못하고 3월에 신년총회를 영상으로 진행했다. 여름에는 다섯 명의 동창들이 모여 Red Rock Amphitheater에서 뜨거운 햇볕 아래 디트로이트 총회에 보낼 합창과 영상을 촬영하여 제작했다.

2021년도 첫 대면모임은 11월에 있었다. 오랜만에 만나 지난 달에 있었던 영상총회를 보고 느낀 점, 모교에 대한 추억과 발전된 면모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이화인으로서의 모교사랑을 확인했다.

오미크론의 여파로 2022년의 첫 대면 모임은 예정했던 날짜보다 몇 주 늦춘 2월19일에 신년총회 겸 떡국모임으로 가졌다. 이화사위들도 같이 참석해 더욱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전년도 활동 및 회계 보고, 새로운 회장단과 이사직 선출, 올 한해의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별히 2022년 가을 LA에서 있을 총회에 많은 덴버지회 동창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아울러 아직 팬데믹이 끝나지 않은 상태라 전체 모임은 자주 갖지 못하더라도 소규모 모임을 활성화시켜 계속해서 선후배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로 했다.



Detroit 디트로이트, MI 회장 황수영 (89 화학)



2021년은 디트로이트지회가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를 주최한 매우 뜻깊은 해였다. 연초에만 해도 대면 총회에 대한 기대도 있었으나 호전되지 않는 팬데믹 상황으로 부득이 영상총회로 전환해야만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하지만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참여가 가능한 영상총회의 장점을 살려 북미주

지역뿐 아니라 세계 어디에서도 좀더 많은 동창들이 영상과 화상회의를 통해 총회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전년도 영상총회의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많은 동창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아이디어를 짜냈다. 한 예로 대면 총회에서만 가능한 시내관광을 못하는 아쉬움을 덜기 위해 '디트로이트로의 초대' 라는 제목으로 관광지 소개 영상을 제작했다. 또한 '총장님과 인터뷰' Q&A 영상을 통해 앞으로 4년 임기 중 김은미 총장님이 모교를 위해 계획, 추진하시는 사업에 관해 배우는 한편 동창들과 총장님과의 유대감과 친밀감을 촉진했다. 교가 순서에서는 북미주 동창들의 학창 시절 사진을 모아 영상으로 재생해 이화 교정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시대별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보며 각자의 그리운 학창시절을 추억했다. 합창은 이번 총회의 주제인 'Rise &

Shine' 과 어울리는 가사의 'Butterfly'(영화 '국가대표'주제가)로 선정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도 완화되어 각 지회에서 야외 촬영으로 제작해 보낸 영상들을 취합해 많은 이화인들의 즐거움과 정겨움을 고스란히 포착한 귀한 합창 영상을 만들 수 있었다.

생각해 보면 30명 남짓 규모로 1년에 고작 두 번 모이는 것이 전부인 디트로이트지회에서 총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무모한 결정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임원들은 막중한 책임감으로 더 많은 동창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2년간 끊임없이 회의하며 아이디어를 교환하며 준비했다. 그 결과 동창회에 대한 애정으로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신 이사님들과 지회 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드디어 2021년 11월 영상총회를 매우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우리의 눈물겨운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높은 Youtube 영상 조회수와 영상총회 참가자 수가 증명해 주어 얼마나 뿌듯하고 기뻐는지 모른다.

총회 준비로 바쁜 일정 중에도 2021년 6월에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번개 피크닉 모임을 가져 야외에서 도시락 점심을 나누며 선후배들 간의 정을 돈독히 하기도 했다.



Houston 휴스턴, TX 회장 한승희 (85 사학)



휴스턴지회는 11월 모임에서 강정현 (89 장식미술) 동창의 지도 하에 연말연시 선물포장 및 장식만들기를 배웠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크리스마스 파티는 박영일 (72 의류직물) 동창택에서 많은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특별히 이 파티를 뜨겁게 달구기 위해 달라스지회의 성악전공 후배들이 먼 길을 마다 않고 달려와 휴스턴지회의 음악전공 동창들과 함께들 특별 음악회를 열어 우레와 같은 박수 갈채를 받았다. 코로나로 지친 동창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위로하는 가슴 벅찬 연주회였다.

휴스턴지회는 지난 25년간 구정맞이 노인회 잔치를 진행해 왔으나 올해는 오미크론의 심각성 때문에 대면 잔치 대신 1월에 도시락을 준비하여 휴스턴 지역의 노인 아파트를 찾아가 나누는 행사로 진행



했다. 2월에는 신년행사로 한인회관에서 휴스턴지회 동창들을 위한 팔죽잔치를 열었고 3월엔 새로 단장을 마친 Memorial Park 에서 피크닉으로 모였다. 5월엔 지역장학금마련을 위한 바자회 및 작은음악회를 준비하고 있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115명 (그중 active member는 45) 규모인 휴스턴지회는 모두가 한마음으로 동창 한 분 한 분을 돌보고 아끼는 한편 나아가 큰 일 작은 일 가리지 않고 이웃을 섬기며 지역사회에도 봉사하는 아름다운 지체이다. 모두가 늘 준비된 자세로 세상에서 빛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이화인임을 잊지 않는 매우 모범적인 지회임을 자랑하고 싶다.

New York 대뉴욕, NY 회장 권순미 (85 불문)



뉴욕지회는 2021년 10월 2일 김현우 회장 (82 서양화) 자택에서 가을 정기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인 40여 명의 선후배들은 오랜만에 만난 반가움을 감추지 못하며 신입회원들을 따뜻하게 환영했다. 모든 참석자들의 자기 소개 후 맛있는 식사와 함께 밀린 이야기를 나누며 정겨운 시간을 보냈다.

2022년 신년 하례식이 2월 2일 8시부터 2시간 동안 Zoom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신년 하례식에는 21명의 선후배 동문들이 참여하여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서로의 근황과 동창회 소식을 나눴다. 온라인모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얼굴을 대하고 만난 듯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담을 나누는 뜻 깊은 자리였다. 특히 새해 첫 프로그램으로 권혜경 (94 정외) 심리치료 및 정신분석학 박사 의 '새해를 맞는 마음가짐에 관한 명상' 특강은 매우 유익했다.



지회소식

Philadelphia 필라델피아, PA 회장 오성실 (68 영문)



팬데믹으로 인해 2021년 동창회 모임은 매달 영상으로 모이다가 12월 연말 모임은 대면으로 식당에서 모였다. 그리곤 동창들 얼굴을 오랜만에 보니 더 반가워 속히 팬데믹 물러가 마음놓고 정상으로 모임 수 있게 되길 바라는 마음이 모두 간절했다. 지난 3년간 한결같이 사랑으로 봉사하신 박윤옥

(75 간호) 지회장께 모두 큰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렸다. 새해에는 일하는 동창들이 많이 모임 수 있도록 만나는 날을 월요일에서 토요일로 바꾸고 격달로 모이기로 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대선배이신 김영애 (62 국문) 동창께서 5년만에 동창회 주소록을 다시 만들어 주신

것이다. 2022년 2월 첫모임에서 '모여야 힘이난다' 는 데 뜻을 모아 4월에는 오랜만에 Chanticleer Garden 에서 봄꽃 맞이 야외모임으로 하기로 했다 .

새해 임원진으로 지회장 오성실(68 영문), 총무 이지현 (88 물리), 회계 남광희 (73 의류직물) 동창들이 수고해 주시게 되었다.



Seattle 시애틀, WA 회장 조혜순 (72 시청각교육)



시애틀지회 정기총회 및 송년 모임을 2021년 12월 3일에 Bellevue Newport Yacht Club에서 개최했다. 총 60여 명의 동창과 20여 명의 사위님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신임 회장과 임원진을 다음과 같이 선출했다: 회장 조혜순 (72 시청각교육), 부회장 박성숙 (69 기독교), 이재경 (80 과학교육), 총무 박연희 (89 섬유예술), 회계 임지숙 (78 시청각교육), 서기 성혜연 (02 국문). Costume Contest 에서는 진 주영숙, 선 장숙렬, 미 김예자 세 동창이 뽀뽀 축하를 받았다. 또한 이날 2021년도 장학생으로 선발된 Isabel Norlen (University of Washington, 한국학 전공)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Costume Contest 에서는 진 주영숙, 선 장숙렬, 미 김예자 세 동창이 뽀뽀 축하를 받았다. 또한 이날 2021년도 장학생으로 선발된 Isabel Norlen (University of Washington, 한국학 전공)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St.Louise 세인트루이스, MO 회장 최혜영 (86 생활미술)



세인트루이스지회는 12월 2일 킹도식당에서 정기 모임 겸 크리스마스 파티를 부부 동반으로 가졌다. 이화 사위 박종관 박사님 (선재숙, 72 의학)의 설득력있는 참조 발언에 감화되어 모든 임원진들이 연임하기로 결정했다. 2021 디트로이트 영상 총회에서 최혜영 (86 생미) 동창이 댓글상 '만사형통상' 을 받아 상품으로 스타벅스 선물권을 탔는데 그것을 이화사위들의 동창회기금 경매 상품으로 기증했다. 그러자 김덕진 박사 (정선주, 68 성악)가 처음부터 열 배의 가격을 불러 감히 아무도 경쟁해 볼 엄두도 못내고 단번에 낙찰되고 말았다. 모두에게 웃음 보따리를 선사한 김 박사의 열정적 이화 사랑에 감사드린다. 2021 디트로이트 북미주 지회연합회 영상 총회 후 모교 대외협력처에서 보내준 선물들을 감사히 나누었다.

10월 정기모임에서 '진선미 플러스기금' 이라는 새 모금방식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즉 모임의 식사비 전체 지불을 자원하는 동창이 있으면 감사히 먹고, 각자의 식사비를 모아 국제재단 장학기금으로 보내는 방식인데 지원자가 많아 예약을 하지 않으면 식사비 지불 기회를 갖기 힘들 정도로 인기가 높다. 모일 때마다 국제재단 장학기금도 늘어나 만나는 기쁨이 배가 되는 매우 유익한 프로그램이다.



10월 정기모임에서 '진선미 플러스기금' 이라는 새 모금방식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즉 모임의 식사비 전체 지불을 자원하는 동창이 있으면 감사히 먹고,

각자의 식사비를 모아 국제재단 장학기금으로 보내는 방식인데 지원자가 많아 예약을 하지 않으면 식사비 지불 기회를 갖기 힘들 정도로 인기가 높다. 모일 때마다 국제재단 장학기금도 늘어나 만나는 기쁨이 배가 되는 매우 유익한 프로그램이다.

2022년 2월 23일에는 모교 사회생활과 교수님으로 정년퇴임하신 후 현재 미주리 콜롬비아대학에서 시무하시는 김왕식 교수님을 초대하여 화기애애한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2월 25일에는 피닉스로 이주한 유임순 (59 성악) 동창이 방문하여 변함없는 동창들의 정을 오붓이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그동안 국제재단 이사로 수고하신 정선주 (68 성악) 동창이 국제재단 기금 작정액 \$100,000을 완수하여, Helen Kim Leadership Society 멤버가 된 것을 경하했다. 나아가 올 5월 '동창의 날'에 졸업 50주년을 맞는 동창들을 '영원한 이화인'으로 추대하여 기념하는 총동창회 프로그램에 정 동창을 한마음으로 추천하였다. 정 동창의 뒤를 이어 선재숙 동창이 국제재단 이사로 선임된 것도 축하했다.



Toronto 토론토, ON 회장 윤지숙 (92 중문)



토론토지회는 Lockdown, 재택근무, 마스크 착용 등 지루하고 답답하고 불안했던 지난 2년간의 우울한 생활을 벗어나고픈 희망으로 2022년을 맞이했다. 화면으로나마 반갑게 만날 수 있음을 감사하며 새해 첫 공식 행사로 2월 18일 햇볼회 예배 모임을 가졌다. 김성란(95 기독교) 목사님의 말씀으로 예배

를 본 후 현직 장례사인 박진화 (85 독문) 동창의 강의를 들었다. 캐나다 장례문화, 사전 장례 준비상품 등에 관해 배우고 많은 질의 응답이 있었다. 또한 다가오는 모교 총동창회 '동창의 날' 행사에 '영원한 이화인'으로 추대되신 유인희 (56 무용) 동창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다. 토론토지회의 자랑스런 어머니이시며 멘토이신 선생님의 이화사랑을 통해 모교에 대한 애착과 긍지를 다졌다.



팬데믹 후 첫 대면 모임인 3월 12일 총회에 41명의 동문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루었다. 1부 순서엔 1년의 산고 끝에 발족된 장학부 소개가 있었다. 미래 지역사회에 기여할 한인 지도자를 발굴하고 지원하자는 취지로 한인장학회와 함께하는 협력 프로그램이다. 한 달 남짓 짧은 모금기간에 기대치를 훌쩍 뛰어넘는 장학기금이 모금되었다. 또한 한인 소유의 양로원 구입을 위한 범 한인 모금운동에도 참여하여 예산을 능가하는 액수를 모금했다. 이런 협력 사업을 통해 이화동창회가 동창만을 위한 친목단체가 아니라 모교의 진, 선, 미의 범 인류적 가치 이념을 지역사회에서 실천하는 단체임을 증명하였다. 2부에서는 전원 41 명이 모두 참석해 팀별 노래와 율동으로 열정적인 에너지와 끼를 마음껏 발산하는 경연대회가 있었다.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서로에게 후한 점수를 아끼지 않는 양보심과 사랑을 느끼며 정말 오랜

만에 크게 웃고 박수치는 즐거운 시간이었다. 올해는 2010년 이후 졸업한 새내기 후배들이 9명이나 참석해 시종일관 젊은 에너지가 총회를 가득 채웠다. 거의 네 시간 동안 진행된 순서에 한명도 빠짐없이 끝까지 남아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문들께 감사한다. 10월에 LA에서 열릴 북미주연합회총회에서는 이 보다 더한 열기와 사랑으로 모두 반갑게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대한다.

Vancouver 밴쿠버, BC 회장 이혜숙 (85 건강교육)



이화 하이킹

지난 2월 이화동문 단체 카톡 방에 이혜숙 회장님의 '이화 하이킹' 안내문이 올라왔다. 팬데믹으로 위축되어 있던 마음을 녹일 반가운 행사여서 즉시 참여 의사를 알렸다.

겨울이 우기인 밴쿠버는 3월로 접어들면 해 나는 날이 점점 많아진다. 몇 주 전부터 일기예보를 주시하며 모두 기도한 덕으로 바로 전날 까지 내리던 비가 3월 8일 하이킹 날은 활짝 개었다. 약 열 명의 동문이 코퀴틀람 (Coquitlam)에 있는 먼디파크 (Mundy Park)에 모여 박혜정 (82 관현) 동문의 안내로 하이킹을 시작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전나무 숲 속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분이 좋았다. 아직은 좀 쌀쌀하지만 전나무 향내가 가득한 상큼한 봄 기운을 가슴 속으로 흡수 빨아들이며 걷는 우리를 환영이라도 하듯 새들의 노래 소리가 숲 속에 울려 퍼졌다. 호수 위에 한가로이 떠다니는 오리들도 모처럼의 청명한 날씨를 즐기는 듯 했다. 우리는 아이들 처럼 호수 난간에서 사진도 찍으며 그동안 쌓였던 팬데믹의 스트레스를 훌훌 털어버렸다. 숲 속 여기 저기 쓰러져 있는 고목 그루터기에 주먹만한 약 버섯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다. 밴쿠버

숲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진풍경이다. 나무는 죽어도 버섯을 내주며 또 다른 생명을 탄생시키는데 나는 어떻게 내 생명을 다 하여 살 수 있을까? 잠시 사색해 본다. 젊은 층은 만 보를, 나 같은 시니어 동문들은 5-6천 보는 걸었을 것이다. 호수를 끼고 먼 코스 언덕을 돌아온 후배들과 선배팀이 합류하여 주차장으로 함께 내려왔다. 막 집으로 출발하려는데 그냥 헤어지기 섭섭하셨던지 총무님이 내 차에 올라타며 식당으로 गया 했다.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회장님이 손수 만들어 온 검은 깨강정으로 허기를 채우며 정담을 계속했다. 세대 차이 나는 선배와 격없이 대화를 나누며 돌보아 주는 젊은 후배들의 따뜻한 마음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 요즘 세상에 나이 많은 선배를 모시고 하이킹을 마다 않는 젊은 세대가 이화의 딸들 말고 또 어디 있을까!



글쓴이
이춘희 (61 불문)

이화 하이킹은 매달 둘째 화요일 같은 시간에 하기로 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집으로 달리는 하이웨이에서 아직도 설경이 남아 있는 골든 이어스 (Golden Ears Mountain) 산봉우리에 흰 구름이 감겨있는 걸 보았다. 내일은 비가 오겠지!

지회소식

Washington, DC 워싱턴 디씨 회장 최미나 (90 관현악)



1939년부터 2016년 졸업생까지 77년의 이대 역사를 하나로 연결하는 워싱턴 DC지회는 2021년 12월 18일 Westwood 컨트리클럽에서 총회 및 송년 모임을 개최했다. 팬데믹으로 많은 규제가 있는 가운데 보건 안전 수칙을 준수하며 2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50여 명이 참석하여 힘들던 2021년을 마무리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2022년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이사회의 회계 보고, 2021년

지회 활동 보고 및, 공천 위원회에서 선출된 최미나 (90 관현악) 동창의 회장 인준 후 파티로 이어졌다. 'Love, Laugh & Party' 의 슬로건 아래 래플 추첨과 패션쇼, '사랑하는 자녀에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 라는 주제의 토크쇼 등 사랑과 감동의 시간이었다.

최미나 새 회장의 리더십 아래 2022년에도 친목과 나눔 실천을 위해 다양한 행사가 이어지고 있다. 2월에는 모교 조형예술학과 박일호 교수님을 모시고 '인상주의 이후 현대



미술' 이란 주제로 온라인 교양 특강을 진행했다. 1939-2016년 졸업생들이 한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고 교수님과 함께 학창 시절로 타임슬립을 하는 즐거운 시간이었다. 3월에는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자들을 위한 구호기금을 모금해 모교의 사랑과 나눔의 인류애적 가치를 실천했다.

미래 계획으로는 4월의 2차 교양특강, 5월 이사회 개최와 새 동창 환영회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동창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지회의 양적,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AURA

Your All-In-One App for Sleep & Wellbeing

Transform your sleep, wellbeing, and life with the personalized, all-in-one app for emotional health.

www.auraapp.com



최은주 (89 의학)



이주영(81 관현악)

박항내과

Internal Medicine

213-382-3663

2727 W. Olympic Blvd. #113, Los Angeles, CA 90006

(Bank of Hope 1층)

동창회 장학금 / 기금 소식

2021 모교에 지급된 지회별/동창그룹별 장학금/목적별 기금 현황

지회명	지급액	장학금 수혜자
남가주 지회	\$15,000	김제희 (미래사회공학부 3) 외 5 명
뉴욕 지회	\$17,500	이수빈 (교육학과 2) 외 6 명
동북오하이오(클리블랜드) 지회	\$7,500	박지현 (물리학과 4) 외 2 명
디트로이트 (미시건) 지회	\$7,500	홍금필 (경영학과 2) 외 2 명
미네소타 지회	\$2,500	이지원 (교육공학과 3)
보스턴 지회	\$7,500	최한비 (화학생명분자과학부 4) 외 2 명
북가주 (샌프란시스코) 지회	\$10,000	한고은 (조형예술학부 3) 외 3 명
씨애틀 지회	\$5,000	류상연 (소프트웨어학부 4) 외 1 명
아틀란타 지회	\$7,500	김현정 (화학생명분자과학부 4) 외 2 명
워싱턴 디씨 지회	\$10,000	염지원 (인문과학부 4) 외 3 명
토론토 지회	\$7,500	이다현 (국어국문학과 3) 외 2 명
휴스턴 지회	\$7,500	허유진 (문헌정보학과 2) 외 2 명

지회/그룹별 기금 TOTAL: \$105,000.00

기타 목적별 기금 (기간: 01/01/2021 - 12/31/2021)	지급액
이화 해외동창기금 (학관 리모델링/재건축 프로젝트)	\$55,000
마곡병원 (이화서울병원)	\$3,000
의과대학 연구기금	\$15,000

기타 목적별 기금 TOTAL: \$73,000.00

전체 TOTAL: \$178,000.00

지회별 로컬 장학금현황

지회명	장학금 및 후원내용
남가주	장학금 \$5,000, 지역사회 후원회비 \$1,000
대뉴욕	\$10,000
보스톤	장학금 \$5,000, 이웃돕기 \$2,000
북가주	장학금 \$1,000
아틀란타	한미 장학회 \$1,000
오타와	\$3,000 Ottawa
워싱턴 디씨	지역사회 장학금 \$500, 선교 헌금 \$1,000, 여성 홈리스 쉼터 \$1,000
클리블랜드	장학금 \$7,500 Cleveland
토론토	로컬 장학금 \$4,638.57, 무궁화 양로원 \$13,150
휴스턴	노인회 \$1,000, 장학금 \$2,000

연도별 총회 개최 지회

년도	지회명	지회장
1976	Washington D.C	김정자(62 가정)
1977	New York	이해경(50 음악)
1978	Chicago	전신애(65 영문)
1979	New York	장한희(53 기독교)
1980	Detroit	김신형(49 가정)
1981	S. California	김성자(61 교육)
1982	Chicago	최순자(66 의과)
1983	New York	조 연(61 약학)
1984	Philadelphia	장창희(62 가정)
1985	Washington D.C	한순정(58 미술)
1986	N. California	이명희(62 교육)
1987	New York	이부자(60 사회)
1988	Toronto	여정자(67 기독교)
1989	Chicago	최경혜(60 법학)
1990	S. California	이희성(60 영문)
1991	N. California	최충자(62 사회)
1992	Detroit	김정숙(62 의과)
1993	Houston	임예자(65 사학)
1994	New York	임병대(60 교심)
1995	Washington D.C	오성미(64 영문)
1996	Boston	김경애(70 의학)
1997	Toronto	정인영(68 물리)
1998	Atlanta	김은숙(68 사학)
1999	Chicago	윤미혜(64 사사)
2000	S. California	김대훈(60 화학)
2001	Detroit	이해경(69 신방)
2002	Orland	하명숙(66 체육)
2003	N. California	강영자(64 기독교)
2004	Houston	김성혜(72 식영)
2005	Cleveland	이선희(70 교심)
2006	Toronto	강선희(59 화학)
2007	New York	최성남(70 약학)
2008	Seattle	이정형(63 약학)
2009	Denver	이미옥(68 국문)
2010	S. California	오영애(74 장식미술)
2011	Boston	조수현(76 수학)
2012	Vancouver	강유순(67 약학)
2013	Washington D.C	오혜경(72 영문)
2014	N. California	제갈숙경(79 기약)
2015	Atlanta	김정희(79 약학)
2016	Houston	김명옥(75 경영)
2017	New York	박영숙(86 경영)
2018	Toronto	박현주(89 물리)
2019	Seattle	신경림(80 장식미술)
2020	N. Texas	신동진(85 섬유예술)
2021	Detroit	황수영(89 화학)
2022	S. California	정현숙(87 체육)

2022 북미주 지회 연합회 지회장

주	지회명	지회장
AK	Alaska	김명순(간호 62)
CA	N. California	이해연(서양화 76)
CA	S. California	정현숙(체육 87)
CO	Denver	김선희(문헌정보 94)
GA	Atlanta	김경원(가정관리 81)
HI	Hawaii	이상희(불문 90)
MA	Boston	김지영(교육 82)
MD	Baltimore	성주연(약학 66)
MI	Detroit	황수영(화학 89)
MN	Minnesota	김정은(체육 90)
MO	St. Louise	최혜영(생활미술 86)
NY	New York	권순미(불문 85)
OH	Cleveland	김인숙(정외 82)
OR	Portland	김미진(도예 79)
PA	Philadelphia	오성실(영문 68)
TX	Houston	한송희(사학 85)
TX	N. Texas	김경은(행정 93)
WA	Seattle	조혜순(시청각 72)
	Washington DC	최미나(관현악 90)
Canada	Montreal	김명원(수학 92)
Canada	Ottawa	정혜경(교육행정 92)
Canada	Toronto	윤지숙(중문 92)
Canada	Vancouver	이혜숙(건강교육 85)



사랑하는 북미주지역 이화 동창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18대 총동창회장 남상택입니다.

모교와 동창회를 향한 한결같은 사랑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화 136년의 역사를 이끌어 온 진선미의 이화정신, 즉 나눔과 섬김, 봉사의 마음을 항상 되새기며 총동창회는 새로운 소망의 열매가 풍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총동창회는 지난 2001년 시카고의 일부 동창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소위 '북미주동창회' (북미주 총동창회에서 2009년 북미주동창회로 명칭 변경)로 인해 '북미주지회연합회' 소속 동창 여러분께서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으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북미주지회연합회'는 총동창회, 국제재단 및 대학과 오랜 기간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온 정통성을 가진 단체로써, 총동창회 회칙에 따라 북미주지역의 공식 지회연합회로 인정한 단체이며, 총동창회 동창회보의 '이화동창' 로고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모교와 총동창회는 북미주지역에서 기존의 '북미주지회연합회' 이외에 새로운 독립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는 공동체의 힘을 분산하는 것으로 모교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북미주동창회'의 결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북미주동창회'가 '북미주지회연합회'에 합류하여 북미주의 모든 동창이 이화 동창이라는 한 공동체로써 합하기를 수차례에 걸쳐 촉구한 바 있습니다.

모교 및 총동창회의 이같은 입장은 역대 총동창회장과 총장 명의로 북미주지역 동창 여러분께 전달된 여러 서면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각 서면의 간략한 요약 및 해외지회 관련 동창회 회칙을 함께 첨부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북미주 이화동창 여러분,

우리는 이화가 미래를 향해 더 높이 비상할 수 있도록 화합과 조화 속에서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총동창회는 북미주의 모든 동창이 한 마음으로 이화동창이라는 공동체로써 협력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화가 한국을 넘어 세계의 명문으로 도약하는 데 든든한 견인차가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0월 남가주에서 개최되는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에서 반갑게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비드가 극심한 상황에서 모든 동창들께서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늘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2년 3월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장 남 상 택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일정

10월 27일(목)	3:00 PM-10:00 PM	호텔 체크인 / 북미주지회연합회 등록
	6:00 PM-8:00 PM	북미주지회연합회 지회장 미팅
	8:00 PM-10:00 PM	북미주지회연합회 정기이사회
10월 28일(금)	7:00 AM-8:30 AM	아침식사
	8:30 AM-9:30 AM	총장님과의 대화
	10:00 AM-4:00 PM	일일클래스 (라인댄스, 민화) : 자세한 스케줄은 추후공지
	4:30 PM-5:30 PM	이화 합창 연습
	5:30 PM-6:30 PM	각지회 탤런트쇼 리허설
	6:30 PM-10:30 PM	총장님과의 만찬, 각 지회 탤런트쇼 (드레스코드 : 정장/ 칵테일드레스)
10월 29일(토)	7:00 AM-8:00 AM	아침식사
	8:00 AM-10:00 AM	총회
	10:00 AM-4:00 PM	일일클래스 (라인댄스, 민화) : 자세한 스케줄은 추후공지
	4:30 PM-5:30 PM	이화 합창 연습
	5:30 PM-6:30 PM	리셉션
	6:30 PM-10:30 PM	북미주 지회 연합회 대만찬 (포멀드레스, 이브닝드레스)
10월 30일(일)	7:00 AM-8:30 AM	아침식사
	8:30 AM-9:30 AM	예배
	9:30 AM-10:30 AM	작별인사, 체크아웃

관광안내

일일골프	10월 28일(금)	Los Verdes Golf Course 참가비: \$120 (차량 중식 포함)
근교관광	10월 28일(금) 10:00 AM - 4:00 PM	Griffith Park, Hollywood, The Grove, LACMA, Bevely Hills 관광
	10월 29일(토) 10:00 AM - 4:00 PM	Getty Center, Santa Morica Beach & 관광
	참가비: \$120/Day (차량, 중식, 입장료 TIP포함)	
캐년관광	10월 24일 - 27일 3박 4일	참가비: \$799 (호텔 2인 1실, 모든 식사 포함) 차량 기사 가이드 팁 별도 Monument Valley, Zion Canyon, Antelope Canyon, Lake Powell, Las Vegas 여행 전날 도착 1박 \$120 별도

가격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신청 인원이 40인 이상일 경우 가능합니다.

(관광안내 문의: 홍보 신수아 949-303-6834)

모든 참가비는 1인 기준입니다.

총회 행사 후 (10월 30일 이후) 골프여행 문의는 Elite Tour - Billy Chang 213-386-1181

2022 Together in Hope Los Angeles 참가 신청서

이름	한글		영문	
소속지회				
거주지주소	Street			
	City	State	Zip	
연락처	Cell	Home		
	Email			
졸업학과			졸업년도	
동행자 수	본인제외	명	동행자이름	

행사날짜	행사내용	참가비	인원수	합 계
10월 27일 (목)	총회참가 등록비 *	\$30		
10월 28일 (금)	아침식사 **	\$20		
	민화 Class (재료비)	\$20		
	총장님과의 만찬	\$150		
10월 29일 (토)	아침식사 **	\$20		
	민화 Class (재료비)	\$20		
	총회 대만찬	\$150		
10월 30일 (일)	아침식사 **	\$20		
관광신청 <small>원하는 관광/여행에 신청자 인원수 표기</small>	시내관광 (금) \$120	\$120		
	시내관광 (토) \$120	\$120		
	Canyon 여행 \$799 <small>전날 1박 숙박비 \$120 별도</small>	\$799		
			총액	

* 8월 31일 전까지 참가등록 신청서 참가등록비 면제

**아침식사 (\$50 Value/ \$30 LA지회 지원)

총장만찬 메뉴선택	소고기		닭고기		생선	
대만찬 메뉴선택	소고기		닭고기		생선	

참가신청마감 (9월15일)	Check를 신청서와 함께 아래의 주소로 보내주세요. (반드시 이름, 졸업년도, 학과, 지회를 기재) Payable to : EWUAA (Ewha Womans Univ. Alumnae Association) 3511 W. Olympic Blvd. 3rd Fl., Los Angeles, CA 90019
호텔예약마감 (9월 15일)	Hilton Los Angeles Airport 5711 W. Century Blvd., Los Angeles, CA 90045 (310-410-4000) https://book.passkey.com/e/50313909 전화 예약사: Ewha Womans University 이름이나 Group Code VEWH
교통 공항-호텔	LAX와 차로 약 5분 거리위치 / Hotel 무료 Shuttle 운행

*참가 신청문의는 총무 한태경 동문에게 연락하세요. (310-428-1252)

노년의 행복을 준비해 드리는 추경아!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65세가 되십니까?

메디케어 신청부터
책임지고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HMO, PPO)
메디케어 보충플랜(Supplement)
처방약 플랜(Drug Plan)

Lic. #0D35285

- 케디케어
- 은퇴연금
- 건강보험
- IRA
- 생명보험

2302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5

Email: kateinvest@hotmail.com

Tel: 310-941-1155
213-808-7076

추경아 (98 영문)
Kyung Kate Chu

Discovery Pro Insurance Agency



Paul Lim
President
Lic#0820848

Direct (213) 252-2055
Cell (213) 215-3400
paul@discoveryins.com

505 Shatto Place, Suite 201
Los Angeles, CA 90020
Office Tel (213) 252-3111
Fax (213) 252-2059



SPECIALIZED
COMMERCIAL
TRANSPORTATION
INSURANCE



KOREAN AIR
전미주 교포 17년 최우수
1등대리점
서울왕복
가장싼티켓!
한국항공항공권구입시
인터네티발호출
20% 할인

GLOCAL Imagine Your Korea
Best Regional Tours in Korea
KOREAN AIR 아시아나항공 7

2022년 초특급 고국방문

대한민국 고국관광 원조
업그레이드된 품격있는 명품 고국관광

글로벌 고국 팔도유람 11일
삼호만의 UPI! UPI! 업그레이드
가운 선택관광 / 목포 해상케이블카
찰취 해양 레일패키지 모두 포함!
목포-해남-별교-고흥-여수-남해-통영-
거제-제주-부산-경주-삼척-속초
해남 명랑대첩 울돌목 / 스카이워크 /
고흥 우주전망대 / 민해 보리밭 / 독일마을 /
통영 울창미륵산 / 거제 근포당굴 / 매미성 /
제주 동문시장 / 세별오름 / 부산 영도 강경마을
해상투어 / 속초 중앙시장 / 설악산 트레킹 (5시간)
\$2,199 +항공 [매주/수]

삼호단독
1. 대한민국 1등 전세버스
2. 글로벌 최신 Wip
28인승 버스 사용
3. 사전예약 최선배정
서비스

서해안/남해/제주 8일
목포-해남-별교-고흥-여수-
남해-통영-거제-제주
\$1,499 +항공 [매주/수]

동해/제주 7일
부산-동해시점/강릉시점/거제시점/광안리/
울산대왕암/울산대교/볼국사/청성리 전망대/
삼척하드레일/강릉오륙천/속초중앙시장
\$1,399 +항공 [매주/화]

제주 3일
5성급 부영 또는 롯데(호텔 숙박)
하루수목원/청계연못/석부각
성암민속마을/조용일제일/우도등
\$499 +항공 [수시]

동해안/제주/서울 8일
서울 인터네티발호출 숙박
부산-울산-경주-삼척-강릉-평창-속초-설악-서울
\$1,749 +항공 [매주/화]

서해/남해 5일 \$1,049 +항공
동해 4일 \$899 +항공

www.samhotour.com

삼호관광
SAMHO TOUR & TRAVEL, INC.

213-427-5500

2580 W. Olympic Bl.,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과 옆에)
Fax 213-427-5535 서울지사 02-722-3575

무료픽업 (전화요망)
가든그로브 / 다이아몬드바
세리토스 / 토렌스 / 가디나

엘바인/플러튼/오렌지카운티 지사
714-522-8844

바로김밥 Baro Gimhap

전혜옥 ALPS 39기

323-733-8900
3250 W. Olympic Blvd. Ste 106
Los Angeles, CA 90006

난 걱정 안해!

아니오서 손문선

어르신들! 서울 메디칼 그룹 주치의 계시니까 좋으시죠?

시니어 분들이 왜 주치의가 필요할까요?

어디가 아프면 일단 주치의 먼저 찾아가서 물어보거든,
왜냐면 수술할지 말지, 약을 먹을지 말지
주치의가 다 알아서 먼저 해결해 주니까...

오랫동안 나를 진료해 주신 주치의는
나를 가장 잘 알고 꼭 필요한 전문의를
연결시켜주기 때문에 걱정 안 해,

최고로 빠른 전문의 리퍼! 정확한 리퍼!
서울 메디칼 그룹의 훌륭한 주치의와 함께 하세요!



※ HMO는 주치의 (내과의, 가정의학과)를 선정하고 그 주치의를 통해서 치료를 받으며 외과, 안과, 심장 내과 등 각 각 진료가 필요할 때 주치의가 지정해주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 제도입니다.

웰케어	휴매나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앤섬 블루크로스	센트랄헬스
브랜드 뉴데이	블루워드	에트나	헬스넷	스캔
		얼라이언트	클레버케어	

SMG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TEL 213.389.0077 • 800.611.9862



a la carte
BANCHAN[®]
www.banchanalacarte.com

반찬 알라까르떼 캐더링

- 결혼피로연, 돌잔치, 회갑잔치, 교회행사, 비즈니스행사, 폐백, 이바지 음식
- 한식, 유러피안, 에피타이저에서 디저트까지 풍성하고 다국적인 upgrade된 fusion food
- LA 유일의 최고급 한식, 양식, 퓨전 캐더링
- 최고 품격의 테이블 세팅, 파티장비와 데코레이션
- Kid's Birthday Party
- 명품반찬

Full Service Catering & Event Planning

323.465.2400 • 141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유산상속법 상속재판전문 박유진 변호사

“현명한 재산 지킴이-박유진 변호사”

저희 로펌은 유산상속법에 관한 전반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산상속 계획 & 상속재판(Probate)

- 유언장/위임장 작성 (Will & Power of Attorney)
- 리빙트러스트(신탁)설립 (Revocable Living Trust & Irrevocable Living Trust)
- 자선신탁 설립 (Charitable Trust)
- 장애인 특별신탁 (Special Needs Trust)
- 생명보험 신탁 (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
- 사단법인 설립 (Private Foundation) 등등
- 상속절차진행 (Probate Administration)
- 상속분쟁 (Probate Litigation)
- 보호자 혹은 후견인 설정 (Guardianship & Conservatorship)

회사법

- 회사 상속 계획 (Business Succession Planning)
- 법인 (Corporation), 유한법인 (LLC)
- 동업회사 (Partnership), 지/상사 설립
- 비영리단체 설립 (Non-Profit Organization)
- 상표등록
- 사업매매 계약서 작성

오렌지카운티 분들께 희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부여나짝 사무실 오픈!



L.A. 3550 Wilshire Blvd, Suite 11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0.9010

O.C. 6281 Beach Blvd. #312
Buena Park, CA 90621
Tel: 714.523.9010 E-Mail: info@hanparklaw.com

김인채 (71 사회)



LEEDCO ENGINEERS, INC.

C. Dennis Lee, Ph.D.
President
3380 Flair Drive, Suite 225
El Monte, CA 91731
Tel.: 626-234-2247
E-Mail: leedcocdl@aol.com



- S**TRUCTURES
- G**EOTECHNICAL
- F**OUNDATION
- T**RANSPORTATION
- C**OMMUNICATION
- C**IVIL / ENVIRONMENTAL
- H**IGHWAY / BRIDGE
- P**ORT / HARBOR

www.leedco.com

Sky Tree International, Inc.

손정연 (93 섬유예술)

- LG LED Display ■ Interior Design
- Kitchen Cabinet & Custom Furniture



424.488.3450 soom@skytreetint.com

- 사업체
- 종업원 상해
- 자동차
- 주택
- 건강
- 생명
- 메디케어
- 연금(IRA)
- 학자금준비
- BOND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

한미보험이 함께 합니다

1972년 시작된 한미보험은 **50**년간 축적된 오랜 경험과 전문지식으로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최대의 효과를 드리기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보험료, 신속한 사고처리, 확실한 보상은 한미보험이 드리는 약속이며 고객들의 믿음입니다.



한미보험(주)

KORAM INSURANCE CENTER, INC.

www.hanmiinsurance.net
info@koraminsurance.com

Los Angeles
323.660.1000

Fullerton
714.562.0300

Garden Grove
714.530.5500

Fresno
559.233.0099



Myung Hahn Farmers Insurance Agency
7700 Orangethorpe Ave. #14, Buena Park, CA 90621
714-521-9900 / Fax 714-228-1103

이명복
(75 식품영양)



Sunny Hills

Kay G. Jun
장계원 (도서 79)

2270 Rosecrans Ave.
Fullerton, California 92833
Business (714) 870-7650
Cellular (714) 869-4989
(714) 496-6621
Fax (714) 870-1233
Email kaygjun@yahoo.com



DRE#01279277

Kach Office is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CHOICE
100 REALTY

정현숙 (87 체육)

HYUN SOOK SONG

Tel 323-737-4567
Fax 323-737-6718
Cell 213-507-2354
E-mail: hschung01@gmail.com
3511 W. Olympic Blvd. 3rd Fl
Los Angeles, CA 90019



DRE#01398279

RESIDENTIAL • COMMERCIAL • NEW DEVELOPMENT

우명희 (73 생물학)

이화여대 남가주 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22년 서울대학교 남가주 총동창회 회장 박제환



서울대학교 남가주 총동창회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김민자(78 피아노)

이종걸 재활병원

재활의학과 미국 보드 전문의



- 관절신경 ▪ 통증치료 ▪ 물리치료
- 근육치료 ▪ EMG (신경근육검사)
- 관절내시경
- 직장상해 ▪ 사고전문
- 줄기세포
- 연골증식주사
- Fluoroscopy 시술
- 신경차단시술

Tel. 323-469-1000

주정부 검사관

4805 Rosewood Ave., Los Angeles, CA 90004
(동양선교교회 앞)

IMATS

INSTITUTE FOR MANAGEMENT AND TECHNOLOGY STRATEGIES

Dr. H. Michael Chung
Office (562)266-8676

이보경 (80 생미)
남가주지회 이사장

INSIGHTS



Information technologies (IT) play a critical role in shaping your business mode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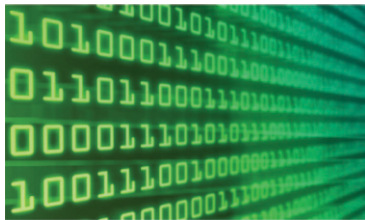
More than half of corporate strategies fail to achieve their intended objectives.



High technologies and their applications can disrupt current business models.

PROJECTS CONDUC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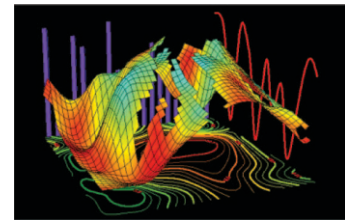
Management of Technolo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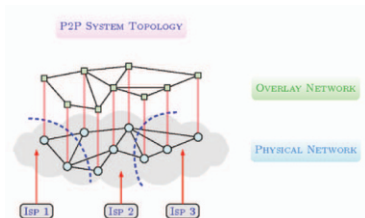
Mobile Lear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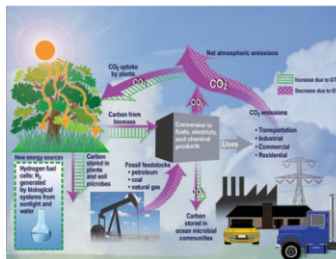
Data Analy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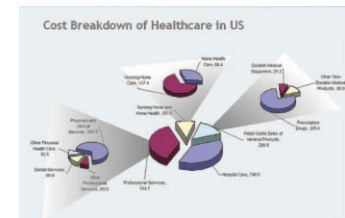
Distributed Collaboration



Corporate Performance Measurement



Healthcare Management



Cross-cultural Accelerator Entrepreneurial Ecosystem



Blockchain



COLDWELL BANKER® PROUDLY HONORS



문인순 (68 생활미술)

INNE CHUNG

Pacific Palisades
CalRE #01364009



International
Diamond Society
Award Winner



Offering the Highest Level of Expertise, Service and Integrity
Specializing in Westside Residential Estates from Beverly Hills to Malibu

Contact InneToday

310.991.3882 | ichung@coldwellbanker.com | InneChungHomes.com

Not intended as a solicitation if your property is already listed by another broker. Affiliated real estate agents are independent contractor sales associates, not employees. ©2022 Coldwell Banker. All Rights Reserved. Coldwell Banker and the Coldwell Banker logos are trademarks of Coldwell Banker Real Estate LLC. The Coldwell Banker® System is comprised of company owned offices which are owned by a subsidiary of Realogy Brokerage Group LLC and franchised offices which are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The Coldwell Banker System fully supports the principles of the Fair Housing Act and the Equal Opportunity Act.

김주경 (77 관현악)

ESAENG

A M E R I C A, I N C.

Package Solution

K.J. (John) Chang

President

Kjchang@esaengusa.com

Tel 562-404-1844 / Fax 562-404-1134

16700 Valley View Ave., Suite 155, La Mirada, CA 90638

www.esaengusa.com

DUO USA
since 1999

결혼해 듀오

결혼이
서로의 결이라면
어린아이가 되어도
좋을 것.



www.duosa.net | www.duo.co.kr

LA **213-383-2525**

NY **201-947-2525**

유니티 종합보험의 차별화된 솔루션

모든 보험 분야에서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유니티 종합보험은
고객을 모든 가치의 중심에 두는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함께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당신이 **꿈꾸는 미래와 행복**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 / 유니티가 제일 잘하는 [건강보험/메디케어 보험]
- / 소중한 미래를 위한 [생명보험/은퇴플랜]
- / 마음 든든한 [사업체/종업원 상해보험]
- / 고객 맞춤형 [자동차/주택보험]



여러 대형 보험사와 연계

모든 보험을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종합보험 에이전시



차별화된 솔루션

최고의 전문가들이 고객의 니즈에
맞는 적합한 보험상품과 컨설팅 제공



사회공헌 활동

건전한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매년 봉사처를 방문, 지속 봉사활동 전개



uniti • global
insurance
services

유니티 • 종합보험

Garden Grove (714) 636-0013
8942 Garden Grove Blvd, Suite 216
Garden Grove, CA 92844

Los Angeles (213) 386-4260
3250 W Olympic Blvd, Suite 300C
Los Angeles, CA 90006

이충선 (56 약학)

한아장학재단

Suhn & Hanah Park Foundation



개발도상국의 탁월한 여성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10주년 한아장학재단의 꿈을 함께 하며
기도해 주실 믿음의 동역자를 찾고 있습니다.

2349 Jefferson St. #101, Torrance, CA 90501

Tel 310320-0852 Email: shpf@ganmail.net



Fissler

Perfect every time.

명품 하나가 생활을 바꿉니다

거위털 이불의 황제 —
EMPEROR

“
아~ 세상에
이렇게 가볍고 포근한
이불이 있었구나!
”



인간이 만든 가장 맑은 공기 —
iclean



명품 하나가 생활을 바꿉니다 —

ROLAND

714·739·8888

www.Rolandshop.com

로랜드 온라인샵

www.Rolandshop.com에서
편리하게 쇼핑과 Part 주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본 광고의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온라인 안내문으로
바로 연결 됩니다 (Shipping & Delivery)



본사

Torrance 323·731·1111
19144 Van Ness Ave., Torrance, CA 90501

매장

Fullerton 714·739·8888
5307 Beach Blvd., Suite 116 Buena Park, CA 90621

E-Shop

www.Rolandshop.com
CS@Rolandshop.com

박경희(78 섬예)

한인최대규모 LG전자총판

LG-리브아트

파트너 모집

리브아트에서 공급해 드리는 각종 전자제품과 생활가전, 생활 필수품, 부탄가스 및 프로판 버너와 같은 아웃도어 용품 등 다양한 제품들을 미주 각 지역에서 직접 납품을 받으실 수 있는 사업 파트너를 찾습니다.

대규모 납품

리브아트는 아파트나 콘도와 같이 대형 주거공간에 납품될 가전제품들을 빌더분들께서 원하시는 제품을 원하시는 수량만큼 확보하여 납품할 수 있습니다. 수량에 관계없이 원하시는 날짜에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납품 받으세요.

저렴한 가격

리브아트는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LA한인사회에서 가장 사랑받고 성장한 한인 기업 중 하나입니다. 믿을 수 있는 기업이자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제품을 공급하는 좋은기업 리브아트에 문의하세요.

에어컨 · 냉장고 · 김치냉장고 · 공기청정기 · 정수기 · 비데 · 밥솥 · 안마의자 · 부탄가스 · 각종조리도구 · 기타가전 및 생활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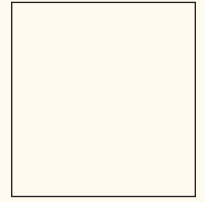


LIVART
THE LIVART GROUP

323.887.7750
2110 S. Tubeway Ave., Commerce, CA 90040

Southern CA Chapter of Ewha Womans University Alumnae

3511 W. Olympic Blvd., 3rd Fl.
Los Angeles, CA 90019



To: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북미주 지회연합회 Ewha Womans University United Alumnae Chapters of North America



이화여자대학교 국제재단 INTERNATIONAL FOUNDATION FOR EWHA WOMANS UNIVERSITY

북미주지회연합회는 195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북미주 지역의 이화여자대학교 동창모임으로서, 오늘날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 지역 동창회를 대표하는 **공식 명칭**입니다. 북미주지회연합회는 본교 총동창회에 등록되어 있는 23개 북미주 지회의 연합을 의미하며 매년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를 개최하고 회보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동창 여러분께서는 각 지역의 지회 모임에 참여함으로써 '진선미'의 이화정신을 계속 간직하고 이화인으로서 본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롭게 개편된 북미주 지회연합회의 공식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유튜브 채널을 통한 이화 그린 네트워크 안에서 긴밀히 연결된 이화인의 힘을 느끼고 교류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ewhana.org



[@ewhanaorg](https://www.facebook.com/ewhanaorg)



[ewhanaorg](https://www.youtube.com/ewhanaorg)